

9. 지역별 파종기에 따른 콩줄기굴파리 (*Malanagromyza sojae*)

피해조사 보고

(작할시험장)

이영호, 정질웅, 홍은희, 박근용

1979년 수원, 유성 및 목포에서 콩 3개 품종 (수원 93호, 광교, 수원 86호) 을 가지고 5월 1일을 첫 파종기로 하여 1주간격으로 8월 28일까지 18회를 파종하여 출현후 4주부터 파종기별로 성숙기까지 매주시료를 채취 피해를 및 피해정도를 조사하였다.

6월 12일 이전 파종에서는 출현 4주후 조사에서 전혀 피해가 없거나 (수원), 경미한 (유성, 목포) 피해를 나타내어 남부지방에서 일찍피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7월초 이후부터 피해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수원에서는 최고 95%를 보였다.

성숙기때 피해를 조사결과 수원에서 6월 19일 이후 파종은 전주 (86.7-100%)가 피해를 보였고 유성에서도 비슷한 경향이였다. 또한 주경보다는 분지에 피해율이 높았다.

수원에서 6월 19일 이전 파종에서 성숙기때 주경의 피해부위는 0.2-4.8 cm였고 6월 26일 이후는 10.6-15.9였다. 유성에서는 조만파간에 주경피해 부위 길이에 대한 일정한 경향이 없었고, 조파에서 수원에 비하여 피해부위가 훨씬 크므로 조파에서 방제효과가 클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콩줄기굴파리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방제효과가 기대하기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10. 2年生 人蔘의 掌葉數에 따른 形質變異

(高麗人蔘 研究所)

崔光泰 . 申熙錫 . 安相得

人蔘育種의 基礎資料를 얻고져 2年生 人蔘의 掌葉數에 따른 形質變異를 調査하였던바 그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紫莖種과 黃熟種의 掌葉數 變異는 紫莖種은 1葉이 3.7% 2葉이 69.7%, 3葉이 26.6%이었으며 黃熟種은 1葉이 24.6%, 2葉이 72.4%, 3葉이 3.0%이었다.
2. 花器形成率은 紫莖種의 1葉이 0.0%, 2葉이 41.5%, 3葉이 58.5%이며 黃熟種은 1葉이 0.0%, 2葉이 84.2%, 3葉이 15.8%이었다.
3. 紫莖種 多莖系統의 掌葉數分布는 1+1葉이 9.1%, 1+2葉이 20.6%, 2+2葉이 56.8%, 2+3葉이 7.1%, 3+3葉이 6.4%이었다.
4. 多莖의 花器形成率은 1+1葉과 1+2葉이 0.0%, 2+2葉이 2.8%, 2+3葉이 38.9%, 3+3葉이 56.3%를 나타내었다.
5. 2年生 人蔘의 掌葉數 變異는 栽植位置와 關係가 없었다.